

WEBVTT

00:00:37.327 --> 00:00:38.756

안녕하세요?

00:00:38.781 --> 00:00:43.319

자유기고가 겸 여행작가로
활동하고 있는 허주희입니다.

00:00:44.697 --> 00:00:48.893

이 시간에는 여행 기사, 어떻게
쓸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00:00:49.890 --> 00:00:55.155

일단 여행 기사는 독자들이
읽는 글입니다.

00:00:55.271 --> 00:00:59.557

내가, 작가 개인이 여행 갔다 와서
쓰는 게 아니라

00:00:59.660 --> 00:01:03.175

독자들이 보기 위해서 쓰는 글이
여행 기사입니다.

00:01:03.306 --> 00:01:08.823

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감상이나
느낌만 전달하는,

00:01:08.848 --> 00:01:11.673

나열하는 에세이 식이 아니라

00:01:12.005 --> 00:01:18.419

글의 주목적은 전달이기 때문에
여행지의 정보와 또한 작가의 감성을

00:01:18.444 --> 00:01:20.711

적절히 섞는 것이 중요합니다.

00:01:21.017 --> 00:01:25.982

그러면 여행 기사는 특별히
어떻게 써야 하는가?

00:01:26.449 --> 00:01:29.744

여행 기사에 들어가는
요소가 있습니다.

00:01:29.975 --> 00:01:32.889

먼저 여행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.

00:01:33.005 --> 00:01:34.661

정보죠.

00:01:35.876 --> 00:01:40.791

그 지역을 어떻게 찾아가고
또 어떤 음식이 맛있고

00:01:41.089 --> 00:01:43.034

어떤 관광지가 있는지.

00:01:43.086 --> 00:01:47.572

즉 놀 거리, 즐길 거리, 먹거리
또 자는 곳.

00:01:47.597 --> 00:01:50.715

정보가 있고

00:01:50.740 --> 00:01:55.663

두 번째는 독자들은
이곳에 안 가봤어요.

00:01:55.688 --> 00:01:59.259

그러면 여행 작가의 기사를 통해서만
그곳을 접하죠.

00:01:59.573 --> 00:02:03.010

그러면 그곳이 어떻게 생겼는지
알아야지.

00:02:03.933 --> 00:02:05.634

묘사가 들어갑니다.

00:02:06.149 --> 00:02:07.609

이건 뭐였죠?

00:02:08.247 --> 00:02:11.856

작가가 현장에 가서 직접
그 지역을 묘사를 하는 겁니다.

00:02:12.138 --> 00:02:15.802

그 주변에 하천도 있고 산도 있고
바다도 있고

00:02:16.093 --> 00:02:18.882

또 노을 질 때 풍경은 어떻고.

00:02:18.907 --> 00:02:24.714

여러분, 풍경 또 자연 환경 이런 거를
묘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.

00:02:25.129 --> 00:02:29.311

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
대두되는 게 뭡까요?

00:02:29.767 --> 00:02:31.753

필력이겠죠.

00:02:32.420 --> 00:02:36.514

소설가들의 필력이 다
이런 묘사에서 많이 나옵니다.

00:02:37.177 --> 00:02:41.787

그러면 정보도 들어갔고
그 지역을 이렇게 글로,

00:02:43.222 --> 00:02:46.884

직접 안 가봐도 글로 보여주는
묘사가 있는데

00:02:46.969 --> 00:02:48.706

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?

00:02:50.652 --> 00:02:53.005
작가의 느낌이 들어가죠.

00:02:53.662 --> 00:02:55.009
감성.

00:02:57.645 --> 00:03:03.982
너무 좋았다, 이게 아니고 어떻게
그 지역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?

00:03:04.224 --> 00:03:08.146
또한 그 여행지에서
어떤 일이 있었는가?

00:03:08.171 --> 00:03:09.810
에피소드.

00:03:09.835 --> 00:03:15.600
이런 이야기가 들어가면
더욱 기사가 풍성해지겠죠.

00:03:17.781 --> 00:03:22.923
그러면 정보, 묘사, 느낌, 감성
이런 게 많이 들어가면

00:03:22.948 --> 00:03:25.330
이 세 가지 요소가 여행 기사에
들어가는데요.

00:03:25.513 --> 00:03:29.513
저 같은 경우에는
이 정보가 30% 정도 들어가구요.

00:03:30.443 --> 00:03:32.550
묘사도 한 30%,

00:03:33.394 --> 00:03:39.922
나머지 40%는 작가의 감성과 느낌,
이런 이야기.

00:03:40.214 --> 00:03:42.422
이렇게 적절히 안배가 되면
여행 기사로서

00:03:42.447 --> 00:03:43.970
굉장히 훌륭하다고 하겠죠.

00:03:44.074 --> 00:03:48.703
정보만 잔뜩 들어가는 거는
가이드북에서 주로 하고

00:03:49.284 --> 00:03:50.800
이런 게 적절하게 들어가야지

00:03:50.825 --> 00:03:54.716
여행 기사로서 굉장히 잘 쓴
여행 기사가 되는 거죠.

00:03:56.356 --> 00:04:02.489
여러분, 그러면 풍경지 묘사,

작가의 감성, 현장 경험

00:04:02.819 --> 00:04:04.969

이런 게 하루아침에
생겨나지는 않습니다.

00:04:05.333 --> 00:04:06.897

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00:04:07.967 --> 00:04:09.745

내가 여행을 많이 다녀야겠죠.

00:04:09.770 --> 00:04:13.097

여행을 많이 다니고 보고 느끼고

00:04:13.122 --> 00:04:17.232

그거를 그냥 일기 쓰듯이
내 느낌을 쓰고

00:04:17.257 --> 00:04:22.941

그리고 그곳이 어떠했는지
본인이 묘사를 많이 하면

00:04:23.540 --> 00:04:28.867

계속 여행기가 늘면 늘수록
글 실력도 계속 늘겠죠.

00:04:29.546 --> 00:04:34.889

그리고 여행 작가는 또 현지에서
발로 뛰면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.

00:04:35.236 --> 00:04:39.236

그냥 인터넷에 있는 정보는
미리 파악은 하지만

00:04:39.475 --> 00:04:44.867

또 직접 현장에 가서 얻는
그런 귀한 정보가 있습니다.

00:04:45.184 --> 00:04:47.171

또 숨어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

00:04:47.559 --> 00:04:52.163

이런 거를 본인이 발굴해서
그거를 여행 기사에 녹여내야 합니다.

00:04:52.952 --> 00:04:58.437

이런 여행 기사는 독자가 읽었을 때
현장에 와 있는 듯한

00:04:59.056 --> 00:05:03.201

생생한 기분과 감동까지
전할 수 있습니다.

00:05:04.170 --> 00:05:08.292

또한 여행지에서 사진은
굉장히 중요합니다.

00:05:08.317 --> 00:05:11.303

그렇기 때문에 그 여행지만의
특징과 개성을

00:05:11.328 --> 00:05:16.982

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사진과
거기에 훌륭한 글이 어우러지면

00:05:17.566 --> 00:05:20.417

굉장히 훌륭한 여행 기사고

00:05:20.442 --> 00:05:23.137

또 그런 여행 기사를 쓰는
여행 작가는

00:05:23.162 --> 00:05:27.162

계속 원고 청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00:05:27.768 --> 00:05:31.497

그리고 아까 에피소드,
감성이 중요하다고 했는데

00:05:32.048 --> 00:05:35.596

여기서 에피소드는 그러면
어떻게 꼬집어내느냐?

00:05:36.567 --> 00:05:39.413

내가 가서 연극을 할 수는
없는 거잖아요.

00:05:40.528 --> 00:05:42.873

일부러 지어내고 만들 수 없잖아요.

00:05:43.301 --> 00:05:45.946

여기서는 사람이 중요합니다.

00:05:47.264 --> 00:05:54.041

그러면 내가 어디 지역에 단풍을 보러
충북 제천의 의림지에 갔어요.

00:05:54.066 --> 00:05:57.627

그런데 거기에 온 여행객들이 있겠죠.

00:05:58.106 --> 00:06:00.675

가족끼리, 아이들을 데려온.

00:06:00.779 --> 00:06:03.925

꼬마와 함께 온 4인 가족이
있을 수 있고

00:06:03.950 --> 00:06:05.571

또한 연인들도 있을 수 있고

00:06:05.596 --> 00:06:08.755

또 손을 잡고 다니는
할머니, 할아버지도 있고

00:06:08.780 --> 00:06:12.313

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.

00:06:12.338 --> 00:06:18.547

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인터뷰라기보다는
그냥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

00:06:18.572 --> 00:06:25.485

소소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
왜 이 제천 의림지에 왔으며

00:06:25.785 --> 00:06:30.745

또 여기가 어떤 점이 가장 좋은지
자연스럽게 물어볼 수도 있고

00:06:30.770 --> 00:06:32.868

또 현지 주민들.

00:06:33.393 --> 00:06:41.347

저 같은 경우에는 우연히 시골길을
걸다가 할머니를 만났어요.

00:06:41.522 --> 00:06:46.512

할머니가 짐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
할머니 짐을 좀 들어주면서

00:06:46.894 --> 00:06:48.106

할머니, 여기 사세요?

00:06:48.131 --> 00:06:53.953

그러면서 이렇게 손녀처럼 다가가면
할머니도 다 반가워하고

00:06:54.700 --> 00:06:57.704

그러면 할머니한테
이 지역에 대해서 물어보고

00:06:57.729 --> 00:07:03.975

할머니가 17살 때 시집을 와서
지금 나이가 75세인데

00:07:05.026 --> 00:07:08.365

60년째 살고 있다
이런 얘기 끌어내고

00:07:08.613 --> 00:07:12.397

그렇게 자연스럽게 할머니와
대화를 나누고 그러면

00:07:12.422 --> 00:07:17.581

할머니가 집으로 초대해서
또 집 마당까지 들어가고

00:07:17.606 --> 00:07:21.065

마당까지 들어가면
또 음료수도 얻어먹고

00:07:21.433 --> 00:07:24.246

그러면 이제 마주 앉아서
얘기도 하고

00:07:24.304 --> 00:07:27.248

그러면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도
끌어내고

00:07:27.273 --> 00:07:32.387

또 가족이 오면 그 가족들이랑도
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

00:07:32.412 --> 00:07:34.408
이런 에피소드를 만들어 내는 거죠.

00:07:34.433 --> 00:07:39.781
그리고 내가 갔는데
길을 걸어다니는데

00:07:40.552 --> 00:07:43.876
길이 막 끊겼다거나
아무래도 외지다 보니까,

00:07:43.901 --> 00:07:49.661
낯선 곳이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리고
어둠 속에서 헤맨다든가

00:07:50.224 --> 00:07:54.769
이런 본인이 겪었던 일을
그냥 자연스럽게 글에 녹여내면

00:07:54.794 --> 00:07:59.902
독자들은 훨씬 더 체감적으로
실감이 나겠죠.

00:08:00.450 --> 00:08:05.783
그래서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과
자기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들을

00:08:06.477 --> 00:08:11.397
기사에 녹여내면 아주 풍부하게
기삿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.

00:08:11.646 --> 00:08:16.666
그리고 또 글을 통해서 여행 작가만의
개성과 감수성이 드러나기 때문에

00:08:17.247 --> 00:08:22.247
이를 독자들이 피부로 느낀다면
좋은 여행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00:08:22.741 --> 00:08:27.967
이렇게 정보는 여러분이
지어내는 게 아니라

00:08:28.407 --> 00:08:30.903
거기에 있는 정보를 적절하게

00:08:30.928 --> 00:08:33.822
그렇다고 어디에 있는 글을
그대로 따오는 게 아니라

00:08:33.847 --> 00:08:37.297
정보도 본인의 글로 만들어야 하고요.

00:08:37.695 --> 00:08:41.508
그 정보를 바탕으로
본인이 기사를 써야 한다.

00:08:41.533 --> 00:08:46.044
정보라고 그냥 글을
갖다 쓰는 게 아닙니다.

00:08:46.375 --> 00:08:51.628

묘사는 당연히 현장에 가서
그 풍경이나 자연,

00:08:53.195 --> 00:08:55.938

5일장 풍경, 축제 풍경

00:08:55.963 --> 00:08:59.963

이런 거는 본인이 보고 느끼는
그대로 묘사를 하면 되고요.

00:08:59.988 --> 00:09:03.988

그 지역에서 느낀 느낌
그리고 내 감성

00:09:04.230 --> 00:09:08.230

그다음에 이야기, 에피소드를
사람과 만나면서

00:09:08.255 --> 00:09:10.248

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거죠.

00:09:10.865 --> 00:09:15.458

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절하게
안배를 해서 쓰면 좋고요.

00:09:15.562 --> 00:09:19.081

일단 처음부터 정보가 나오면
좀 지루한 글이 되니까

00:09:19.106 --> 00:09:24.201

처음부터 그냥 아예 에피소드로
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묘사.

00:09:24.226 --> 00:09:26.971

보통 묘사부터 시작하는 경우가
많습니다.

00:09:27.332 --> 00:09:32.303

묘사, 그 지역을 아주 한눈에 보듯이

00:09:32.328 --> 00:09:43.042

정말 한 장의 풍경을 글 하나에
완전히 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

00:09:43.770 --> 00:09:49.901

그렇게 본인의 필력으로
멋지게 묘사를 하면 그 여행 작가는

00:09:49.926 --> 00:09:54.809

굉장히 오랫동안 여행 작가로
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.

00:09:55.372 --> 00:10:02.257

이렇게 효과적인 여행 기사는
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

00:10:02.282 --> 00:10:07.450

잘 안배해서 훌륭한 여행 기사를
썼으면 좋겠습니다.

00:10:16.119 --> 00:10:20.285

여행 작가는 여행 기사를 쓰고
먹고삽니다.

00:10:20.310 --> 00:10:22.587

그러면 여행 기사,
어떻게 써야 할까요?

00:10:23.029 --> 00:10:27.596

먼저 크게 여행 기사에 들어가는
요소가 있습니다.

00:10:28.162 --> 00:10:36.456

여행 기사는 정보, 그 지역에 대한
정보가 가장 중요하겠죠.

00:10:36.481 --> 00:10:41.123

정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묘사.

00:10:43.016 --> 00:10:45.450

그 지역을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?

00:10:45.770 --> 00:10:48.803

그리고 작가의 감성이 들어가야겠죠.

00:10:49.394 --> 00:10:51.652

여기 왔더니 어떻더라, 감성.

00:10:51.677 --> 00:10:53.259

그리고 에피소드.

00:10:53.986 --> 00:10:58.236

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글의 요소를
이렇게 배분하면 됩니다.

00:10:58.465 --> 00:11:05.707

저 같은 경우에는 한 30%,
30%, 한 40% 이렇게 되겠죠.

00:11:05.732 --> 00:11:09.732

정보가 거의 100%는
가이드북이 되겠죠.

00:11:10.193 --> 00:11:12.649

그래서 여러분, 이 묘사에서

00:11:12.674 --> 00:11:17.246

아무래도 그 작가의 필력이
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.

00:11:17.490 --> 00:11:21.636

정말 한 폭의 풍경화를 보듯이

00:11:21.661 --> 00:11:24.025

그거를 글로 표현하는 것이
묘사입니다.

00:11:24.165 --> 00:11:32.389

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포항에
갔다 와서 쓴 여행 기사인데요.

00:11:32.969 --> 00:11:36.386

처음에 보통 정보로
시작하지는 않아요, 기사가.

00:11:36.411 --> 00:11:40.233

왜냐하면 첫 문장에서 독자들을
사로잡아야 하기 때문에.

00:11:40.258 --> 00:11:42.417

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.

00:11:42.442 --> 00:11:45.030

처음에 묘사로 들어갑니다.

00:11:45.467 --> 00:11:48.872

대부분 묘사가 많은 비중을
차지하는데요.

00:11:49.231 --> 00:11:55.775

파란 바다와 하얀 등대가 어우러진
풍광과 자연의 생동감이 넘실대는 곳.

00:11:56.190 --> 00:12:01.402

마음속에 이런 풍경을 담고
영일만의 고향 포항으로 향한다.

00:12:02.434 --> 00:12:03.891

길 위에서 생각한다.

00:12:03.916 --> 00:12:08.326

앞으로 만나게 될 포항이
내게 어떤 보물을 안겨줄까?

00:12:08.653 --> 00:12:11.871

그 설렘이 여행자의 발길을 재촉한다.

00:12:12.477 --> 00:12:18.809

메말랐던 정서가 열정으로 타오르고
텅 빈 가슴이 환희로 파도치는 그곳,

00:12:19.098 --> 00:12:20.571

포항을 만나보자.

00:12:21.494 --> 00:12:26.848

이걸 읽는 독자들이 자기는
가보지 않았지만

00:12:26.873 --> 00:12:29.868

똑같이 이 글을 쓴
여행 작가의 감성에 대해서

00:12:29.893 --> 00:12:31.828

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.

00:12:32.033 --> 00:12:35.052

그러면 포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?

00:12:35.077 --> 00:12:36.951

기대감이 더 크겠죠.

00:12:37.240 --> 00:12:40.784
이런 식으로 당연히 현장 취재.

00:12:40.809 --> 00:12:44.720
현장을 가서 본인의 느낌
또한 감성을

00:12:44.745 --> 00:12:48.919
고스란히 전달하는 것이
바로 여행 기사입니다.

00:12:48.944 --> 00:12:53.226
그리고 묘사와 정보만 있으면
약간 밋밋합니다.

00:12:53.369 --> 00:12:58.346
그러면 여기에서 감동으로 전하는
효과적인 여행 기사가 되려면

00:12:58.581 --> 00:13:01.218
약간 이야기, 에피소드가
있으면 좋습니다.

00:13:01.243 --> 00:13:05.243
내가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
또 어떤 사람을 만났고

00:13:05.367 --> 00:13:10.601
주로 이 에피소드는 사람을 만나면서
많이 시작되죠, 혼자 하는 것보다는.

00:13:11.084 --> 00:13:16.106
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으면
더 생생하게 감동으로 전해집니다.

00:13:16.377 --> 00:13:19.474
그러면 더욱더 훌륭한
여행 기사가 되는 거고요.

00:13:19.637 --> 00:13:24.195
일단 여행 기사를 잘 쓰려면
먼저 여행을 많이 해야겠죠.

00:13:24.399 --> 00:13:29.929
가서 직접 보고 느끼고
본인이 많은 경험을 해야

00:13:29.954 --> 00:13:34.883
또 그 경험을 토대로 글 속에
잘 녹여낼 수 있기 때문에

00:13:34.908 --> 00:13:39.956
여행을 많이 다니고 또 글을 많이,
여행 기사를 많이 써보기 바랍니다.

00:13:40.218 --> 00:13:44.419
그러면 여러분도 훌륭한
여행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.

00:13:45.033 --> 00:13:46.722
감사합니다.

